

새로운 發展을 모색하는 忠南大學校

吳 德 均

(忠南大 總長)

1. 忠南道民의 聲援 속에서 탄생

1) 寶雲캠퍼스 時代

찬란한 百濟文化의 옛 터전이며 한반도에서 대대로 전통 文化를 꽃피우고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 지방에 忠南大學校가 세워진 것은 6·25 전쟁의 포화가 한창인 1952년 5월 25일이었다.

해방 이후 서울과 각 지방에서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忠南道民들은 우리 지방에도 교육 文化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마니 한 닢과 보리 한 말씩을 거두어 道立 忠南大學校를 세웠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忠南道廳의 차고를 강의실 삼아 출발한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은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한 학교를 명문 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의 기구와 편제를 확충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서의 학풍을 세우는데 전력했다.

文理工大學과 農科大學 2개의 단과대학에 5개의 학과로 개교한 본교는 1954년에 工科大學과 大學院 석사과정, 그리고 2부대학 등의 기구를 갖추면서 성장의 기틀을 다져가던 중 5·16 軍事革命을 만나 忠北大를 흡수, 忠淸大學校로 개편되는 혼란도 겪었다.

1963년 忠北大가 분리되어 나가자 본교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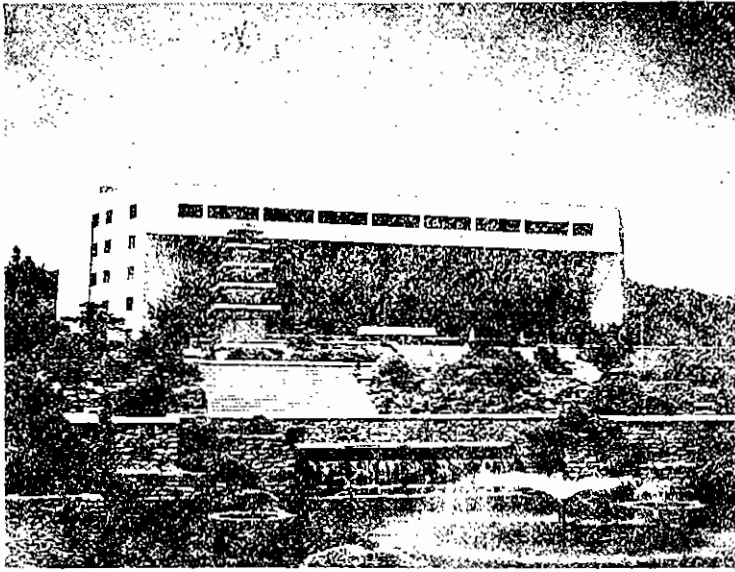
로소 '研究하는 教授, 공부하는 學生'이라는 旗幟를 내걸고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는 등 학교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특히 1968년에는 본교 구성원 모두의 숙원 사항이자 충남 도민의 희망이었던 醫科大學과 大學校 病院이 設立됨으로써 명실공히 國立 綜合大學校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게 되었다.

2) 大德캠퍼스 時代의 開幕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 국가의 근대화 작업이 한창일 때, 우리나라 중핵 지대의 모든 文化를 선도하는 學問의 殿堂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寶雲캠퍼스(대전직할시 중구 문화동 소재)의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현재의 大德캠퍼스(대전직할시 유성구 소재)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러한 여론과 忠南大人들의 열망이 현실화되어 1977년 6월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켜 보고 충남 도민들이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 주는 가운데 본교는 우리나라 大學史上 두번째로 종합 캠퍼스 건설 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1978년 工業教育大學이 大德캠퍼스로 일차로 이전했고, 1979년 文科大學과 理科大學, 1981년 法科大學 및 經商大學, 대학 본부가 이전했으며 1982년 農科大學을 마지막으로



◀ 중앙 도서관은 5 각형으로 지어진 忠南大의 상징 건물로서 정문을 직선으로 마주 바라보며 장엄하게 서 있다.

로 하여 캠퍼스 이전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또한 寶雲캠퍼스에는 의과대학과 대학교 병원이 신축됨으로써 본교는 대전직할시내 48만 평의 부지에 2 개의 캠퍼스를 지니게 되었다.

캠퍼스 이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本校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당당히 우리나라 유수의 국립 종합대학교로서, 또한 인류 문화 창달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우리나라 중부 문화권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2. 우리나라 中核地帶의 學問殿堂

1) 大德캠퍼스의 完成

‘創意·開發·奉仕’의 校是 아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한 국제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거어진 鷄龍山 기슭에 광대하게 자리잡고 있는 大德캠퍼스의 완성과 寶雲캠퍼스의 지속적인 발전은 그것이 곧 새 學風의 진작이며 새로운 大學文化의 창조라는 데 그 깊은 뜻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大德캠퍼스의 중앙에는 忠南大人의 기상을 상징하는 白馬像이 우뚝 서 있고 본교의 상징 건물인 5 각형의 중앙도서관은 교문을 직선으로 바라보며 장

엄하게 서 있어 본교가 未來指向의인 대학, 創造的인 학문 전당임을 느끼게 한다.

2 개의 넓은 종합운동장과 웅장한 체육관이 캠퍼스의 西北을 광활하게 감싸고 있으며, 북녘 기슭에는 1,000 명의 지방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기숙사가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본교는 '90년 2월부터 '91년 1월까지 전개하고 있는 ‘大學發展基金造成’ 기간중에 기탁된 발전 기금으로 대덕캠퍼스 서편 소나무 숲속에 국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연극 공연 및 영화 상영은 물론 현대식 숙박 시설을 갖춘 대학 회관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2) 大學의 組織 및 機構

본교는 현재 6 개 대학원, 12 개 단과대학, 85 개 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23 개의 각종 연구소, 20 개의 부속·지원 기관이 있어 교원들의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大德研究團地內 7 개 연구소에서 채용한 兼任教授 25 명을 포함하여 634 명의 교수가 연구와 강의에 몰두하고 있고, 165 명의 조교 및 1,100 여 명의 직원이 재직하면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00 여 명의 학생들이 내일의 능력 있고 성실한 지도자를 꿈꾸면서 배우

고 익히는 데 정열을 불태우고 있다.

또한 본교가 開校 이래 지금까지 배출한 인제는 학사·석사·박사를 합쳐 4만 1천 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모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수들 외에 우리나라의 학계·교육계·정계·관계·법조계·실업계, 그리고 의학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지도적 인물로 크게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중부권 제일의 學問殿堂으로 성장한 본교의 학술 기구는 다음과 같다.

· 대학원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대학원

· 대학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가정대학, 예술대학, 수의과대학

· 연구소

백제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경영경제연구소, 공업교육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농업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의약품개발연구소, 지역사회의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예술문화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지역개발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어학연구소, 생물공학연구소, 통일문제연구소, 미국학연구소, 교육발전연구소, 환경문제연구소, 체육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 부속 및 지원 기관

도서관, 박물관, 전자계산소, 보건진료소, 기숙사, 공과대학 부속공장, 중등교원연수원, 부속농장, 동물사육장, 부속동물병원, 연습림, 대학병원, 법률상담소, 신문사, 방송국, 사회체육지도자연수원,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총대장학회, 학술연구재단, 출판부

3) 教育·研究 環境의 改善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그동안 중앙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경직된 통제 속에서 지내왔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정치·경제 여건의 다변화 속에서 대학은 옛날의 사고 방식과 운영 체제를 지니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다달았으며, 날로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尖端科學時代를 능동

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도 없게 되었다.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교육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대학의 진로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고 학생들에게 실질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본교는 연구소 평가연구팀을 가동하여 대학의 신경 조직과도 같은 연구소들의 활동 사항을 냉철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소의 實質化·大型化를 추구할 계획이다.

또한 엄청나게 변화된 시대적 조류 속에서 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자아내고 있는 敎養教育課程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이 양식 있는 民主市民으로 육성되도록 하기 위해 '90 학년도 1년 동안 '교양교육과정 개선연구위원회'를 가동하여 교양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91 학년도부터는 시행하게 된다.

3. 未來指向的 大學으로의 改革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 사회 구조의 조정, 지방자치제 실시 등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학이 지금까지의 정부 보호 및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있지만, 또다른 진척과 고립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이 현실에 안주하여 현상 유지만 해나간다면, 大學은 그의 본령인 研究·敎授·奉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같은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교는 '90년부터 대학의 외형 발전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改革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1) 大學發展基金造成

開校 4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 및 재원 부족 때문에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대학의 정체 상태를 능동적으로 극복하여 진리 추구라는 대학의 基本理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대학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면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道場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본교는 '90년 2월부터 '91년 1월까지 大學發展基金 造成事業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등문, 교직원, 학부형,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유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31일 현재 15억 원의 發展基金이 조성되었으며 '91년 1월까지 약 100억 원의 基金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에는 鮮京그룹이 교수의 학술 연구와 학생들의 종합적인 林業實習을 위해 시가 60억 원 상당의 임야 30만 평을 본교에 기증하여 사회 각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또한 대학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학생들도 총학생회나 씨클연합회 차원에서 자선 행사 등을 개최하여 기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모여진 기금은 주로 學術研究, 國際學術交流, 研究機器材費, 獎學金, 大學文化基金, 海洋訓練院 建立, 大學會館 建立 등에 주로 쓰이게 된다.

각 응도별로 사용되는 기금은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본교는 유치된 발전 기금의 효과적인 관리 및 발전 기금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가칭 '財團法人 忠南大學校 發展基金'을 설립하여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2) 兼任教授制度的 施行

날로 과학화되어 가고 변화의 속도가 급속해지고 있는 오늘날 情報化社會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본교는 大德研究園地內 각종 연구소에 체직중인 科學者들을 兼任教授로 채용하여 강의,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본교는 '90년 9월 1일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 원자력연구소, 동력자원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표준연구소, 인삼·연초연구소, 해사기술연구소, 화학연구소 등 7개 연구소의 연구원 25명을 兼任教授로 채용했으며, '91년말까지는 20개 이상의 연구소에서 120명의 兼任教授를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학 전임 교수들의 강의는 대부분 교과 이론 쪽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兼任教授들이 강단에서 응용 분야를 쉽게 풀이하여 강의함에 따라 이론과 응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대한 흥미를 더욱 유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學事行政의 民主化·效率化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 및 경직되어 있는 대학 기능의 유동성 회복을 위해 본교는 학사 행정의 民主化 및 效率性을 추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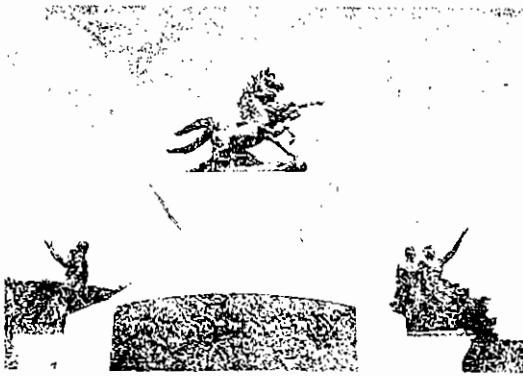
우선 본교는 教授採用制度를 대폭 改善하여 해당 학과 교수들이 교수 채용의 절대적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한 각종 사무 공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 범위도 대폭 확대하여 部署長이나 大學長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하는 行政風土를 조성해 가고 있다. 특히, 기성회 직원의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을 억제하고 여기서 절감되는 예산을 컴퓨터 특별 강좌, 어학 특별 강좌 등에 투자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각종 여론 수렴 제도도 활성화시켜 대학의 言路를 넓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여론을 본교의 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가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4) 厚生福祉의 擴大

본교는 하루 20,000명 이상의 인원이 생활하는 거대한 조직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이 마음놓고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 공간을 넓히고 후생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꾸준히 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교는 현재 1,00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학생 기숙사를 '92년까지 2,000명의 지방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기숙사 증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제3학생회관이 '91년말까지 완공되면 학생들의 씨클실이 완전히 확보되며 학생 식당도 다소 여유가 있게 된다. 또한 大學發展基金으로 大學會館을 건립하여 교수들의 휴식 공간도 넓혀 나갈 것이며, 선경그룹이 본교에 기증한 忠淸北道 소재 3백 4만 평의 임야 중 경관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학생 林業實習 및 修練을 겸할 수 있는 修練場을 지어 항상 용기 있고 패기 있는 젊은이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



▲ 충남대학교의 상징인 백마상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요 시설 확장 사업 외에 본교는 현재 40%에 달하는 獎學金 支給率을 大學發展基金造成이 끝나는 '91년부터는 43% 수준 이상까지 높이기 위해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5) 實質的인 國際學術交流

본교는 미국의 Stephen F. Austin State 대학교, 일본의 鳥取大學, 北海道大學, 廣島大學, 九州大學, 독일의 Dortmund 대학교, Karlsruhe 대학교, 중화민국의 대만국립사범대학, 대만 체육대학, 태국의 Srinakharinwirot 대학교 등 5개국 9개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으며, 외국 7개 대학과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國際化時代에 즈음하여 본교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國際學術交流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자매 결연 대학과는 매년 1명 이상의 교수들 교환하고 2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교에 유학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그밖에 교수간 공동 연구와 정기적인 국제 학술 대회를 마련하고 있다.

학문의 국제화에 따라 본교 전체 교수 중에서 매년 200명 이상의 교수들이 국제 학술 대회에 참가하는데, 논문 발표자 및 토론자에 한해서 여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大學發展基金 造成事業에 의해 약 5억 원 정도의 관련 기금이 충분히 조성될 것이므로 국제 학술 대회

에 참가하는 교수들에 대한 지원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國際交流가 확대될수록 여타 가진 차원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야호르 지구촌 시대 속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國際交流가 위축된다는 사실은 대학의 퇴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은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활발한 國際交流活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여야 한다.

4. 21世紀를 準備하며

'93년의 大田 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나고 정부 종합 청사 외청이 대전에 세워지면 대견적할시는 덩실공히 우리나라 제2의 首都로 부상하게 된다.

때문에 본교는 이러한 주변 환경에 맞추어 發展計劃을 수립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따라서 본교는 '89년 8월 '忠南大學校 發展企劃委員會'를 발족시켜 그동안 40회 이상의 포럼, 2회의 공청회, 설문 조사, 전체 위원회 등을 통해 '忠南大學校 長期發展計劃(1992~2001)' 수립 활동을 활기차게 전개해 왔다. 發展企劃委員會는 본교가 21세기에는 '研究中心大學', '大學院中心大學'으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대학원생의 증가, 학과의 조정, 필요 시설의 증가 등 세부 계획을 세워 왔으며 이제 그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대학이 대학답다는 것은 大學의 本領인 研究·教授·奉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大學의 奉仕機能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본교는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創意·開發·奉仕'의 校是를 실천하는 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고 있는 본교는 38년간 쌓아 온 전통과 연륜을 바탕으로 人類文化發展과 世界平和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